

김귀태 한국서부발전(주) 건설처장



“사상 최대 건설 Mode 진두지휘, 서부발전 Align 구축 올인”
차분한 목소리와 온화한 미소. 짧은 인터뷰 내내 느낄 수 있었던 부하 직원에 대한
속 깊은 배려. 덕장(德將)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김귀태 건설처장을 만나 2013년
주어진 미션과 목표를 들어보았다.

Q 2013년 건설처의 최대 현안 및 핵심 건설추진과제

A 2013년 건설처의 핵심 과제는 첫째, 평택복합 2단계(KOWEPO 13710작전) 추진이며, 내년 하계 전력난을 대비하여 7월 10일까지 평택복합 Gas Turbine 계통병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책연구과제로 추진 중인 태안 IGCC의 성공적인 건설이며, 세 번째는 인허가로 5개월 지연 착공된 태안 9, 10호기 적기 준공을 위한 공정을 만회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예비전력부족으로 발생한 지역별 순환정전은 1시간 동안 사회적 혼란과 함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설비예비율 급감으로 2013년 하계피크 대비 긴급 설비증설이 필요하여 평택복합 2단계를 추진 중이며, 2013년 7월 10일 가스터빈 최초 발전개시를 통해 하계피크 대비 국가 전력예비율 약 0.7%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복합 2단계 건설공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짧은 공기이므로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적기준공을 위해 『KOWEPO 13710작전』계획 수립 및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표준공기인 63개월 대비 24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가스터빈 발전개시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 4개월 만에 발전회사 중 최단기(12개월→4개월) 실시계획승인취득, 환경영향평가 또한 국내 최단기간(20개월→10개월)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김귀태

학력

1985 서울산업대 전기공학과

2009 한양대학원 프로젝트관리학 석사

주요경력

2005 한국서부발전(주) 건설처 계전기술팀장

2010 태안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2011 건설처 사업총괄팀장

現 건설처장

Profile

착공 전 준비기간을 28개월 단축하여 조기 착공함으로써 가스터빈 상업운전 실공사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보하였으며, 건설부지의 암반특성으로 굴착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가스터빈 및 관련 설비를 석산부지 내 배치시켜 토석부산물을 즉시 반출함으로써 공정 지연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Q 새해 건설처의 주요 수행미션

A 2013년 건설처의 주요 수행미션은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하계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전력설비 확충으로 평택복합 2단계 'KOWEPO 13710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프로젝트를 긴급히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특히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Q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신개념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A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은 석탄을 고온, 고압 하에서 가스화 시켜 생산되는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신 발전기술로 기존 발전설비에 비해 고효율(42%이상)이며, 친환경적인 차세대 석탄발전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IGCC 설계, 제작, 운영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IGCC 발전기술을 전략수출사업으로 육성,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2006년부터 'IGCC 실증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한국형 300MW급 IGCC 표준모델 기술개발 완료 후 운영기술 확보를 위해 매진할 예정입니다.

IGCC 실증플랜트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가스화플랜트 철골설치공사, 복합발전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가스화설비의 핵심설비인 가스화 블록설치(2013년), 수전 및 시운전 착수(2014년), 상업운전(2015년)을 개시하여 1년간의 실증운전을 거쳐 2016년 11월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담당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설비 형식으로는 처음으로 화학플랜트 특성이 있는 가스화설비가 결합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 및 시운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Q 서부발전 건설정책의 일선 최고책임자로서의 당면목표

A 서부발전은 태안 9, 10호기(2,100MW), 태안IGCC(380MW), 동두천복합(1,880MW), 평택복합 2단계(946.5MW), 가로림조력(520MW)등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2013년도는 건설 Mode로 회사의 Align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Target은 첫째, 지난 해 9.15정전 대란 관련 긴급 건설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복합 2단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예비율 약 0.7% 상승으로 하계 및 동계피크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로림조력 환경영향 평가를 신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적용 시 반영 추진하여 청정에너지로 발전하는 가로림조력을 원활히 진행토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Q 발전플랜트 건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서부발전의 방침과 원칙

A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설현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 ‘안전사고 제로화’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운영 ▲건설 사업소별 안전체험장 운영(전 사업소 안전체험장 신축으로

산업재해예방 교육 강화) ▲건설공사 시 공사감독,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교육시행 ▲외부 전문가의 건설현장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안전정책 심의, 안전진단·감사, 사고원인분석·대책 등 자문역할 수행)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직 문화를 향상시키고, 설비안정 및 재난안전 강화를 경영전략에 반영시켜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KOSHA) 사후관리 및 신규 인증으로 지속적인 안전경영을 실현할 것이며, 재난안전팀을 재난안전실로 확대 개편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Q 건설처장으로서의 각오와 향후 계획

A 고객 Need, 즉 운영 및 유지보수 부서인 발전처에 신규 기술설명회를 통하여 주기기 및 보조기기 기본설계, 환경설비 등 운영상 어려웠던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여 ‘고객 만족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설비개선 사항들을 설계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Management 기법을 건설 전 직원이 몸에 익혀 원활한 건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사업 CM 및 O&M 수행 등 해외 진출 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KEA